

1. 장애아 자녀를 둔 학부모 효과적으로 상담하기

- 장애아 자녀를 둔 학부모 이해하기
 - 자녀를 평생 돌보며 지내야 함
 -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이겨내야 함
 - 아이의 잘못도 내 잘못이 됨
 - 자녀로 인해 늘 조마조마 불안함
 - 학급의 학부모 사이에서 소통이 어려움
 -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함
 -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음
- 동반자의 입장에서 학부모와 소통하기
 - 일반적으로 장애아 학부모는 특수 학급 교사보다 일반 학급 교사를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있어도 속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음
 - 학부모가 속상한 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이면에 쌓여있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아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알아주어야 함
- 특수 학급 교사와 협력하기
 - 특수 학급 교사들은 장애아에 대한 전문가이며 아이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대개 장애아와 그 부모에 대해 담임교사보다 더 잘 알고 있음
 - 아이가 학급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문제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때 특수 학급 교사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
- 장애아와 비장애 학급 아이들 사이의 관계 살펴보기
 - 겉으로 보기에 장애가 명확한 아이들은 학급의 친구들로부터 선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
 - 겉보기에는 자신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장애가 있어 교사의 배려를 받는 경우 학급의 다른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므로 늘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

2. 행복 통합 학급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?

- 교사의 태도=아이들 태도
 - 교사가 장애아를 대하는 태도를 학급의 비장애 아이들도 닮음
 - 교사가 장애아를 존중하면 비 장애 아이들도 장애아를 존중하며 행동함.
교사의 모범이 필요함
- 학부모와 만나기
 - 2월에 가출석부를 받고 학급에 장애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3월이 되기 전에 미리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할 수 있음
 - 이러한 상담은 학부모와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학부모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미리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
- 알림장 창구 활용하기
 - 알림장은 학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
 - 학부모는 불안감이 신뢰로 바뀌게 되고, 아이는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교사의 애정을 알게 되고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게 됨
- '장애'보다 '다름'에 먼저 초점 맞추기
 - '장애'보다 '우리는 모두 다르다'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
 -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고 그것을 배려하면서 살고 있으며, 장애아에 대한 배려도 다름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됨
- 통합학급의 장점 설명하기
 - 통합학급은 장애아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뿐 아니라 비장애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설명하기
- 아이의 장애에 대해 이해 구하기
 - 필요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장애아가 가진 장애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음
 - 관련 동화책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됨
- 아이들의 도움 받기
 - 장애아를 위해 비장애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도움을 주는 아이, 받는 아이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는 세심함이 교사에게 필요함
- 역할 맡기기
 - 할 수 있는 교실 내의 역할을 장애아에게 맡기기
- 장애아의 학급 내 문제 행동 지도하기
 -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
 - 수업 시간 중 괴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때
 -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교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을 반복할 때
 - 갑자기 큰 소리로 울 때
 - 자해행동(예: 손 물기, 이마 때리기)을 할 때
 - 자리 이탈과 교내외를 돌아다니는 행동을 할 때